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Philip Larkin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주제 연구



2014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김 준 표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Philip Larkin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주제 연구

지도교수 윤 희 수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김 준 표

김준표의 영문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8월 일



주심 영문학박사 박 양 근 (인)

위원 영문학박사 송 호 림 (인)

위원 영문학박사 윤 희 수 (인)

목 차

Abstract	ii
I. 서 론	1
II. 죽음의 필연성	7
III. 죽음의 수용과 관조	24
IV. 결 론	44
참고문헌	47

A Study of the Theme of Death in Philip Larkin's Poetry

Jun Pyo K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subject of death of Philip Larkin's poetry.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poets in the 1950s, Larkin deals with the theme of death primarily in his poetry. Therefore, this study will analyze his poems related to Larkin's life and his fundamental attitude toward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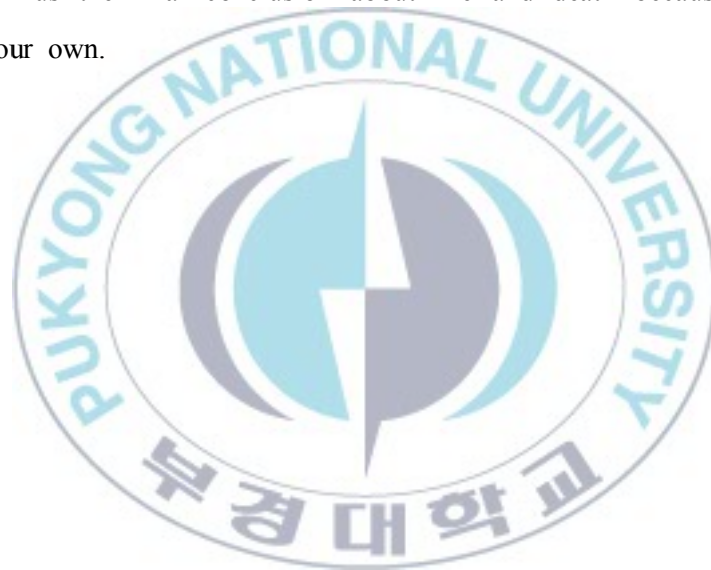
Principally, the subject of death in his poetry is based on his real experiences.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ny systematic thought and religious will through his work. At times, his radical demeanor and poetic expressiveness have been largely evaluated by the reader and critics negatively. However this thesis focuses on Larkin's unique way of interacting with readers by revealing even his weaknesses. Accordingly, it is a definitive object in this study to confirm that he was a contemplative poet who did not evade the issue of death.

In order to study Larkin's theme of death, the body of this thesis is divided into two parts. Part II examines the poet's basic stance facing death

by analyzing relevant poems. This section conducts a detailed study on why he observes the world keenly with gray color and says in such a gloomy tone, through examining anti-Christian attitude reflected in his work.

Part III focuses on Larkin's meditative manner that eventually accepts death in contemplation by analyzing "At Grass" and "Aubade" in detail.

Philip Larkin has observed that people can never be happy as long as death exists. Most of his poems have proved the observation, but he also leaves with us the final conclusion about life and death because it will be made on our own.



1. 서 론

필립 라킨(Philip Larkin, 1922-1985)은 기존의 모더니즘이나 신낭만주의 사조에서 탈피하여 독자와의 문학적 소통의 공간을 좁힌 1950년대 "시류파"(時流派, The Movement)시인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이들 시류파 시인들의 특징은 일상 너머의 초월적 세계에서 의미를 찾았던 당대의 모더니즘 시인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보편적 경험을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취급했다(Regan 18). 라킨 이전의 신낭만주의와 모더니즘 시인들은 이성적 비판력이나 분석적 반성은 부차적이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즉각적인 체험과 통찰을 통해 파악되는 상상적 깨달음을 일차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생각했다(Langbaum 35). 물론 이들의 시가 한 시대를 총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주제적 편협성과 기교적 빈곤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은 받고 있다(이재은 2). 그러나 한편으로 쉬운 문체와 짧고 간결한 의미부여는 대중이라 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시의 난해한 거부감을 상당부분 줄임으로써 시가 학자나 작가들만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님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시류파 시인들의 시를 통한 대중과의 폭넓은 조우는 1950년대 영국 시 문단의 한 형태를 굳건히 확립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라킨 시에 있는 죽음의 주제를 연구 하고자 한다. 따라서 라킨의 시 가운데 죽음의 주제와 관련된 시들에 집중할 것이고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근본적 태도와 방식에 주력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인 라킨이 인생 모두의 운명인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필연성을 자신만의 방식과 방법으로 사색하며 수용하고 관조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자 한다.

문학에서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죽음이란 보통 시간적 의미로 해석되며 생명체의 탄생 및 성장 그리고 종말이라는 계기적 질서 끝에 놓인 결로 이해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인간은 무한한 시간을 상상하며, 현실시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로부터 초월하고자 노력한다(이인영 44). 하지만 여전히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관념적 범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공간영역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무력화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라킨 시에 드러난 시간과 공간 설정은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라킨의 죽음의 주제 안에 내포된 공간과 시간의 이미지 병치는 라킨만의 드러냄의 방식과 결합하여 독자에게 풍부한 삶의 감성을 불러일으켜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라킨이 중요한 시적 소재로 사용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그의 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로저데이(Roger Day)는 라킨의 입문서에서 "시간의 흐름은 라킨의 작품에서 되풀이되는 또 하나의 주제이며, 실제로 라킨은 자신이 시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으로부터 경험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다(윤현정 38). 이런 면에서 라킨의 시에서 시간은 인간으로부터 환상을 빼앗고, 피하고 싶은 현실을 상기시키며, 인간 스스로도 그 자신을 속이는 도구로서 시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시간의 협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King 6). 따라서 라킨은 그의 시적 소재 역할을 하는 시간의 개념과 연결되는 공간을 택했으며 이러한 공간적 선택은 죽음의 장소로서의 괴리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소통을 원하는 것이고 소통을 원한다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해답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라킨만의 드러냄의 방식은 가식이 없다. 그의 의견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가감 없이 직시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독자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다. 죽음을 초월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실제적 해답일 수 있으므로 어쩌면 라킨은 독자에게 자신처럼 깊은 사색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 태도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가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신만의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하는 독자나 대중들은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길에서 삶의 본질적 동질감을 어렵지 않게 그의 시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동질감으로부터 이 논문의 발상은 시작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동질감을 다 같이 맛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는 아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죽음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세밀히 관찰하고 있는 라킨의 초대에 응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 라킨이 주목하는 최종적인 물음에 나름의 논지를 도출해 보자는데 있다.

시인 라킨에게 있어 시를 쓰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며 "즐거움이 없이는 시도 없다"(RW 82)라고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글을 쓰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운 자신과의 소통의 작업이었던 것이다. 물론 직설적이고 외설적인 표현들과 함께 고독하게 삶과 죽음을 견지하는 어떤 한계가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의 비 묵시적 성향을 두고 다양한 연구와 해석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라킨의 삶과 시를 통해 연구한 내용들 중에 약간은 편향적인 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라킨을 평가한 김명옥은 「기독교 관점에서 본 T.S 엘리엇과 필립 라킨의 시 비교 연구」에서 "전후 세대의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면서 그의 삶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라킨에게는 삶에 대한 비전이나 꿈 혹은 선지자적 사명을 찾아볼 수 없다"(김명옥 33)고 지적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지는 자칫 작가라면 어떤 선지자적 사명 하에 삶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뒤따라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같은 시각에서 "라킨은 죽음에 대한 경멸과 공포를 시의 주된 정서로 표현하면서 삶에 대

한 절망과 허무를 노래했다"(김명옥 30)는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의 삶과 시 전체를 획일적으로 평가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찾음으로 어떤 후견인적인 책임과 작가로서 대중을 위한 책임감을 묻는 것은 일정부분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라킨의 시가 기독교적인 영생관이나 고된 현실의 삶을 초월한 이상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다소 염세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의 시에서는 가장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물음에 대한 시인 나름의 뚜렷한 관점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존재하는 한,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어떠한 삶의 성과와 족적들도 의미가 없고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라킨시의 죽음의 주제는 죽음의 장소로부터 출발한다. 공업지대, 현대식 병원건물, 구급차 안, 검은 도시 등은 모두 라킨이 시에 등장 시킨 다소 암울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산업화의 산물들이다. 라킨은 이처럼 죽음의 장소들을 씬이 없고 혼탁하며 안식이 없는 장소로 선택한다. 시를 통해서 이러한 장소들이 인간에게 가장 숭고해야 할 죽음의 장소로 과연 마땅하고 적절한 지를 독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최종적인 귀착은 회피할 수 없고 필연적인 운명과도 같은 인생의 결말, 즉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다. 라킨은 근본적으로 죽음이 있기에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라킨의 죽음에 대한 회의적인 표현들이 대중으로 하여금 그가 죽음을 애써 회피했던 시인이었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라킨에게 있어서 원초적 두려움이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독자에게 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라킨 스스로가 두려움의 치유 과정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치고 있음에 주목할 것이다. 대중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감춤 없이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한 문학적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라킨 시에 드러난 죽음에 대한 많은 관점이 여러 연구를 통하

여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의 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삶과 죽음의 함의들을 우리는 시인 자신이 아니기에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외롭게 성장한 그의 자전적 전기나 사후에 발간된 몇 권의 라킨에 관한 출판물을 통해 라킨이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었으며 시를 통해서 무엇을 소통하고자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II장에서는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라킨의 기본 입장을 필두로 왜 그가 이렇게 죽음을 회색빛의 어두운 색조로 관찰하고 있는지를 먼저 다룰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유년 시절과 반(反)기독교적 관념이 어떻게 그의 작품에 반영되고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라킨이 느끼는 죽음의 장소에 대한 이질감을 그의 대표 시「그 건물」("The Building")과「구급차」("Ambulance")라는 두 편의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라킨의 시각에 비춰지는 인생의 죽음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죽음의 장소적 변질이 가져오는 괴리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고독 속에 죽음을 사색하며 결국에는 수긍하고 수용하고 있는 라킨의 관조적 태도를 다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라킨의 수긍과 관조적 태도는 체념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비초월적 현실 인식은 그의 시 전체에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라킨을 위시한 시류와 시인들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라킨 시대의 영국 시단에 흐르는 문학사조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죽음에 관한 매우 현실적 물음의 기조를 확인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 그의 대표 시「풀밭에서」("At Grass")를 중심으로 죽음에 관한 시인 라킨의 면밀한 사색에 주목할 것이다. 사람의 인생무상을 나이 들어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노마(老馬)의 움직임을 통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곧이어 '분해' '붕괴'를 의미하는 그의 시「풍화작용」("Disintegration")을 통해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간에 의해 지배받는 인생의 무기력함을 이 시를 통해 엿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라킨이 보다 구체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드러내
었던 「새벽의 노래」("Aubade")를 통해 너무나 차분히 정적 속에서 죽음을
응시하고 있는 고독한 시인의 관조적 태도를 보게 될 것이며, 이를 통
해 최종적으로 오랫동안 라킨에게 잠재해 왔던 죽음의 실체적 두려움의
결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죽음의 필연성

라킨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RW 66). 이미 그는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대한 남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죽음을 소재로 한 「언덕은 드러누운 자세로」("The hills in their recumbent postures")나 「유언과 유서」("Last will and Testament")와 같은 작품은 라킨이 아직 20세가 되기 전인 1940년에 쓴 시로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일찍부터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재은 16). 그의 이런 "죽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의 시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먼저 라킨의 시적 변모가 죽음에 대한 회의적 관점에 이르기까지의 동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 다음 시인 라킨에게 찾아오는 하루라는 개념이 그에게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죽음에 관한 대표 시 「그 건물」("The Building")과 「구급차」("Ambulance")를 통해 라킨이 느끼고 있는 죽음의 장소적 변질에 대한 괴리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라킨이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까지 말을 더듬었다는 사실이며 시력을 상실해서 어려서부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전기적인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어릴적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암울한 고향의 기억만을 떠올리게 했다. 라킨에게 자리 잡고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게 떠올릴 만큼 소중하지가 못했다. 그가 기억하는 고향 코벤트리는 언제나 무미건조한 곳이며 우울함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의 시 「기억난다, 기억나」("I remember, I remember")에서 라킨이 추억하는 고향은 단지 그를 출생시켜준 장소로만 기억 하고 싶을 뿐이었다.

여러 일들이 지나갔고, 난 내 부츠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다.
여기 었었니, 내 친구가 미소 지었다, '네 뿌리가 박힌 곳이잖아'?
아니, 단지 거기는 내 어린 시절이 소모되지 않는 곳이었지
난 대꾸해 주고 싶었다,
단지 내가 출발한 곳이었을 뿐이라고

Things moved. I sat back, staring at my boots.
Was that, my friend smild, 'where you' 'have your roots'?
No, only where my childhood was unspent,
I wanted to retort,
just where I started; (CP 68)

흔히 어린 시절의 고향은 누구에게나 추억과 낭만이 깃든 되돌아가고 싶은 장소로서 표현되고 회상되는 곳이지만 라킨에게는 암울한 기억만 가득 찬 곳이었다. 이러한 어릴 적 우울함은 라킨에게 있어 고향이란 단지 삶의 희망과 비전이 없는 암울한 기억만을 늘 간직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삶은 항상 단조로웠고 고독하고 우울한 죽음의 깊은 상념은 어찌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두 번째 원인은 원만하지 못했던 부모의 부부관계로 인한 어릴 적 상처를 들 수 있다. 단란하지 못했던 부모의 부부관계와 어릴 적 가정환경은 라킨 자신이 남겨 놓은 기록에도 드러나 있다(Life 9). 나치즘에 호의적이었던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평범한 교사출신의 어머니와의 화목하지 못했던 결혼생활은 라킨에게 결혼생활의 부정적인 면들만 기억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반 기독교적 종교 관념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오는「신앙 치유」("Faith Healing")의 2연의 마지막 행은 교회에서 안수기

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두꺼운 혀는 울먹이고, 그들의 눈은 슬픔을 짜냈다.

들어본 적 없는 요란한 응답소리가 북적이고 기뻐한다.

Their thick tongues blort, their eyes squeeze grief, a crowd
Of huge unheard answers jam and rejoice. (CP 86)

안수기도를 받고 난 후에 들어본 적 없는 요란한 응답소리(교회의 방언을 의미함)를 들은 화자는 곧바로 3연에 가서는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이 작품은 텔레비전에서 본 이태리의 기록영화를 소재로 했다고도 전해지며(Life 300), 그런가 하면 50년대에 여러 차례 영국을 방문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으로 인해 촉발된 듯하다는 의견도 있다(김상무 80).

위에서 열거했듯이 라킨의 삶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그 자신의 핸드캡과 가정의 불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관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장래를 기약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은 그와 관계를 맺었던 연인들과의 복잡하고 때로는 난잡한 생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처럼 라킨이 그리는 삶에 대한 그림은 항상 어둡기만 하다. 그래서 그런지 또한 라킨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은 능동적이지가 못하다. 활기는 사라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활력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비유하자면 그저 하루를 애써 보내야 하는 조립식라인에 갇혀 일을 꾸역꾸역 해대는 고된 노동자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그의 시 「두꺼비」("Toads")에서 두꺼비처럼 틀어박혀서 직장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 한데서 출처를 찾을 수 있다.

라킨은 또 「하루하루」("Days")라는 짙막한 시에서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인간들에게 제한적이며 강제적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시에서 라킨은 직접적인 죽음의 언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면서도 강제적인 삶의 의무를 모두에게 지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루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지?

하루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지.

그것들이 온다, 그것들이 우리를 깨운다

거듭 그리고 지속해서.

그것들은 행복해 지려고 존재 한다;

하루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아, 그 문제를 푸는 것

성직자와 의사를 불러오지

긴 옷차림을 하고 있는

들판너머로 달리면서.

What are days for?

Days are where we live.

They come, they wake us

Time and time over.

They are to be happy in;

Where can we live but days?

Ah, solving that question

Brings the priest and the doctor

In their long coats

Running over the fields. (CP 98)

화자는 여기서 "하루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Where can we live but days?")라고 말하고 있다. 능동적인 시간의 범주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맞이해야 하는 라킨 자신의 처지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2연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성직자를 불러오고 삶을 연장하기 위해 의사를 불러오지만 들관너머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죽음의 길목은 회피 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이 시를 하루하루가 어떤 경험의 연속이라는 관점 하에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깊은 사색이라는 연구(김상무 86)는 일면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 삶의 본질 너머에 존재하는 죽음의 근본적 실체를 라킨은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라킨의 이러한 "죽음이 있기에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기본적 입장은 「독커리와 아들」("Dockery and Son")의 마지막 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든 안하든, 인생은 흘러간다,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남기고
세월, 그리고는 종말만을 남긴다.

Whether or not we use, it goes,
And leaves what something hidden from us chose,
And age, and then the only end of age. (CP 109)

이 의미대로 해석 하자면 종말의 최종 신호를 알리는 죽음의 문턱이 우리 앞에 존재하는 한 세상의 어떤 귀중한 의미들도 따분하고 두렵게 회석될 수 있다는 결론인 것이다. 그렇다고 라킨이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죽음만

을 생각했던 시인은 아니다. 그에게도 시를 쓰는 이상으로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준 재즈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었고(Dason 14), 비록 평생 독신을 고집했지만 한때는 그에게도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부모의 불화 속에 성장한 라킨이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기는 했으나(Life 9) 자유연애를 즐길 만큼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항상 그의 죽음의 깊은 상념 이상으로 그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하지만 그의 첫사랑 이후에 만나는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성향은 상당히 탐닉적이고 편향적이며 쾌락적인 느낌이 든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는 사랑의 자기희생적인 미덕이나 남녀사이의 구체적이며 진실된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는 연구는(이세규 69)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환멸일까? 아니면 첫사랑의 실패에서일까? 라킨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회의는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간다는 것 자체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그 건물」("The Building")에서 우리는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간다는 것과 인생의 덧없음을 병원건물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초라한 기색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시를 통해 문명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병원에 의지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력함을 보게 될 것이다.

가장 멋진 호텔보다 더 높이
그 빛나는 골짜기 나타난다. 몇 마일에 걸쳐, 그러나 보라
그 주위로 갈비뼈처럼 뻗뻗한 거리들 흥망 한다
지난 세기에서 나온 거대한 한숨처럼
그 문지기들 초라하다. 무엇인가 입구 쪽으로 계속 다가오는 것
택시들 아니다. 그리고 현관에 덩굴식물이라도 상관없을
경악스러운 냄새가 떠있다.

공항 라운지처럼 거기에는 표지 책과 많은 차가 있다.
그러나 철제의자 열에 온순히 줄지어 앉아
뜯겨나간 잡지를 뒤적이는 사람들
그리 멀리서 오지 않았다. 지역버스처럼 더욱 많다.
외출복을 입고 반쯤 채워진 쇼핑 가방을 들고 있으며
불안하고 चे념한 얼굴,
비록 간호사가 매 분마다 누군가를
데려가기 위해 온다 하여도,

Higher than the handsomest hotel
The lucent comb shows up for miles, but see,
All round it close-ribbed streets rise and fall
Like a great sigh out of the last century.
The porters are scruffy; what keep drawing up
At the entrance are not taxis; and in the hall
As well as creepers hangs a frightening smell.

There are paperbacks, and tea at so much a cup,
Like an airport lounge ,but those who tamely sit
On rows of steel chairs turning the ripped mags
Haven't come far. More like a local bus.
These outdoors clothes and half-filled shopping-bags
And faces restless and resigned, although
Every few minutes comes a kind of nurse
To fetch someone away, (CP 136)

이 시의 제목 그 건물("The Building")은 이미 우리에게 시의 주제가 어

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암시하게 한다. 1연의 시 속 화자가 병원건물에 도달하는 과정은 기대와 불안이 상충하는 장소가 되었다. 호텔처럼 화려한 건물의 입구는 경악스러운 냄새가 나는(frightening smell) 곳이며 구급차들이 이리저리 들락거리는 어수선했던 출입구이다. 그리고 일종의 보모(보호자)들은 철제 의자(Steel chairs)에 앉아서 뜯겨나간 잡지를 뒤적이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보모의 얼굴과 환자의 얼굴들이 환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2연 6행의 "만족하지 못하고 체념한 얼굴들"은 환자의 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현대화된 커다란 병원건물에 그들의 운명을 맡겼다. 이처럼 라킨이 적용시키고 있는 죽음은 자신의 의지대로 벗어날 수도 없고 극복 될 수도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발길은 초라하고 쓸쓸하기에 결과의 기대보다 허무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마지막 9연의 "어차피 죽으리라는 것을 모두 안다"(All know they are going to die)는 시인의 회의적인 귀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 뭔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기 위해
심각한 종류의 잘못된 게 분명하다,
왜냐면 보라 얼마나 많은 층이 필요한지 얼마나 키가
지금껏 커 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보라 그때를, 평일 열한시 반
그리고 거기에서 열외된 이들; 보라 그들이

그들이 정해진 층으로 오를 때 어떻게 그들의 두 눈들이
서로를 향하는가, 짐작하면서; 도중에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친다, 너무 빨라 누더기인 병실옷을 입고
그들은 그를 본다. 또한 그들은 말이 없다. 공통으로 지닌
이 새로운 것을 깨달았으니 그들은 말이 없다,

왜냐면 이런 문들 지나면 방 들이 나오고,
그리고 더 많은 방이 아직 남았다, 서로 더욱 멀어져 간다.

Here to confess that something has gone wrong.
It must be error of a serious sort,
For see how many floors it needs, how tall
It's grown by now, and how much money goes
In trying to correct it. See the time
Half-past eleven on a working day,
And these picked out of it: see, as they climb
To their appointed levels, how their eyes
Go to each other, guessing; on the way
Someone's wheeled past, in washed-to-rags ward clothes;
They see him, too. They're quiet. To realise
This new thing held in common makes them quiet,
For past these doors are rooms, and rooms past those,
And more rooms yet, each one further off. (CP 136-137)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심각한 종류의 잘못(error of a serious sort), 즉 병명을 듣기위해 자신의 증상을 고백하는 환자와 보모의 근심어린 눈빛이 존재한다. 5연은 이제 진단을 받고 병실로 향하는 환자의 눈에 비친 주변의 분위기를 설명한다. 지나치며 서로 마주치는 얼굴들은 여전히 어둡다. 그들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짐작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향한다. "문들 지나면 방들이고, 그런 것들 지나면 또 방들이고, 거기에 또 방들이다"라는 화자의 시선은 삶에 대한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어찌 보면 이 방 중의 하나는 결국 자신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방 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기회가 사라지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세계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건물을 벗어 날 수 없는 현실에 놓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아직은 아니고, 아마도 여기서는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어디에선가. 그것이 바로 이 깨끗이 잘라낸 낭떠러지인,
병원이 의미하는 바이다. 죽어간다는 생각을
초월해 보려는 안간힘; 왜냐하면 만일 그것의 힘이
성당을 능가하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다가오는 그 어둠을 막지 못한다. 비록 저녁마다 사람들이
쓸모없고, 미약하며, 달래주는 꽃들로 애쓸지라도.

All know they are going to die.
Not yet, perhaps not here, but in the end,
And somewhere like this. That is what it means.
This clean-sliced cliff; a struggle to transcend
The thought of dying, for unless its powers
Outbuild cathedrals nothing contravenes
The coming dark, though crowds each evening try

With wasteful, weak, propitiatory flowers. (CP 137-138)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체념에 이르는 단계이다. 그렇지만 이 건물에서는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언젠가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득 성당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죽어간다는 생각을 초월해 보려는 인간힘"이 죽음을 초월하여 또 다른 세계를 전망하는 과정으로 도달할 수 없기에 화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비록 "죽음을 초월하기 위해 애쓸지라도"(Struggle to transcend the thought of dying) 또는 발버둥 친다 하여도 이제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달래는 꽃들이(Propitiatory flowers) 그들의 죽음을 위안한다 하여도 죽음이 결국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인 라킨의 생각이다.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라킨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객관적이다. 사실적인 묘사와 충분히 예상되는 병원 건물에서의 환자와 보모들의 근심어린 감정들을 라킨은 별 꾸밈없이 얘기하고 있다. 비록 죽음을 초월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지나 철학을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대한 보편적 과정과 두려움을 매우 진솔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음의 장소이다. 화려하고 현대화된 건물 안이지만 그곳에는 경악스런 냄새가 떠다니는 곳이었다. 화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의 이질감을 병원건물에서 마주치는 어두운 사람들의 표정에서 발견하고 있다. 또한 환자나 보모는 전혀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다. 서로의 불안한 얼굴들을 보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뿐이다. 마지막 연에 가서 시인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죽는다는 생각을 초월하기 위한 투쟁을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이라고 시를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관찰하고 있다. 죽음을 초월하려는 의지보다 인정하는 모습이다.

라킨은 이 시에서 처음부터 현대화된 이 병원건물에 주목하였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준비하고 운명을 맞아들이는 장소인 이 현대화된 병원건물이 건물의 겉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게 죽음을 더욱 초라하고 쓸쓸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조망하고 있듯이 라킨에게 있어 죽음은 낯선 단어가 아니었다. 죽음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운명의 화약고이자 한번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재생 불가능한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집 『북향선』(*The North Ship*)에 수록된 II편의 「여기는 당신이 태어난 곳」("This was your place of birth")으로 시작되는 시에서도 라킨은 죽음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닌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란 것을 자각하고 있다.

당신은 준비 되었는가 밤이 데리고 올 그것에?
그의 얼굴을 결코 보여 주지 않는 낯선 자,
하지만 들어오겠다고 묻는다;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여려는가?

Are you prepared for what the night will bring?
The stranger who will never show his face,
But asks admittance; will you greet your doom (CP 5)

이 시는 소넷 형식의 14행시이지만, 7, 1, 6행이라는 독특한 구성으로 만들었다(Timms 31). 10행에 나오는 낯선 자(The stranger)는 죽음의 사자를 의미한다. 먼저 화자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출입의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죽음의 대상자인 모든 인생들에 대한 양보는 철저하게 없어 보인다.

1961년 초에 쓴 다음에 오는 「구급차」("Ambulance") 역시 죽음 바로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시이다. 시인은 여기서 구급차를 '고해실'처럼 개방된 곳이 아닌 밀폐된 장소라고 말한다. 보통 성당의 고해실은 성스러운 장소의 개념이다.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고 죄를 사면 받는 은밀한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급차가 시가지를 누비면서 아무런 제지를 받

지 않고 특권을 누리며 고해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라킨은 한낮에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실리는 현장을 목격하는 아낙네들의 눈을 통하여 죽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김상무 242).

고해실처럼 닫혀, 그것들이 누빈다.
도시의 시끄러운 한낮을, 거의 돌려주지 않지
그들이 흡수한 시선들을
빛은 광택나는 회색, 명판위로 두 팔,
그것들 와서 켜다 어느 도로 경계석이든;
온갖 거리들 안 가본 곳이 없지.

그러다가 계단 위 또는 도로위의 아이들 흩어졌지,
또는 가게에서 돌아온 여인들 역시
다른 저녁식사의 냄새들 맡는, 본다
사나운 창백한 얼굴 붉은 들것
담요 위로 일순 솟는 것을,
그것을 실어와 집어넣을 때,

Closed liked confessionals, they thread
Loud noons of cities, giving back
None of the glances they absorb.
Light glossy grey, arms on a plaque,
They come to rest at any kerb:
All streets in time are visited.

Then children strewn on steps or road,
Or women coming from the shops
Past smells of different dinners, see

A wild white face that overtops
Red stretcher-blankets momentarily
As it is carried in and stowed,

여기 1연에 출연한 구급차의 역할은 위급한 사람을 실어 나르며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로서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의 사환으로써 마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최후의 심판관의 대행자 같은 느낌이다. 도시의 정적을 깨트리고 출연한 구급차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자기가 쉬고 싶은 보도연석 옆에 머무르며 언제든 죽음을 맞이하려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들것을 내밀고 있다. 2연의 담요 위에 드러낸 거칠고 창백한 얼굴은 화자가 지칭하는 "그것"이다. 여기서 담요 위에 드러낸 거칠고 창백한 얼굴은 라킨이 지켜본 죽음의 결과물이다. 숨이 멎은 사람은 시신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엄숙함도 없고 공포 또한 없다. 영혼이 육신을 이탈해서 안락을 누리지도 않는다. 차가운 시신이 드러누워 있는 엄연한 현실만을 시인은 엄두에 두고 있다.

우리들이 수행하는 일의 바로 그 아래
모든 걸 풀어주는 공허함이 있음을 눈치 채고,
영원하고도 허무한, 엄연한 그 진실을
잠시 동안 온통 그대로 감지한다.
채워진 문 물러난다. **불쌍도 하지,**
그들이 속삭인다. 자기들 자신의 비탄한테;

왜냐면 무감각해진 대기 속으로 멀리 실려
갈 수 있다 그 상실의 갑작스런 닫힘
거의 끝에 이른 그 무엇 주변의,

그리고 여러 해 걸쳐 그 안에
응집한 것, 독특한 제멋대로 혼합,
가족과 유행의 그것, 거기서

마침내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멀리
사랑의 교환으로부터 떨어져 놓는다
닿을 수 없는 방 속에
교통은 갈라져 그 방 지나가게 하고
남아서 올 것을 더 가깝게 오게 하고,
흐릿해진다 거리, 우리 모두인 그것에.

And sense the solving emptiness
That lies just under all we do,
And for a second get it whole,
So permanent and blank and true.
The fastened doors recede. **Poor soul,**
They whisper at their own distress;

For borne away in deadened air
May go the sudden shut of loss
Round something nearly at an end,
And what cohered in it across
The years, the unique random blend
Of families and fashions, there

At last begin to loosen. Far
From the exchange of love to lie

Unreachable inside a room
The traffic parts to let go by
Brings closer what is left to come,
And dulls to distance all we are. (CP 104)

그러므로 라킨이 말하는 이러한 총체적인 행위들의 결론은 3연의 "영원하고 공허한 것"으로써 어찌 보면 운명적인 진실이고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시인 라킨의 귀착이다. 3연의 마지막 행에 나오는 "그들이 속삭인다. 자기들 자신의 비탄한테"(They whisper at their own distress)라는 의미는 그들도 지금은 속삭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예외 없는 죽음의 운명 앞에 그들의 명운을 맡겨야 할 것이라는 시인의 예언자적 설명이다. 이제 4연의 시인은 이제 무감각해진 "대기 안으로"(in deadened air) "실려져 갔다"(borne away). 시인의 눈에 비친 생명의 마감은 숨이 멎고 체온이 식은 싸늘한 육신의 모습이다. 「그 건물」("The Building")에서와 같이 「구급차」("Ambulances")안에 들어와 있는 육신의 모습은 죽음의 유무를 떠나서 너무나 초라하기까지 하다. 쉽게 생각해서, 죽으면 인생 그만이라는 통설적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시인 라킨은 죽음을 왜 하필 이렇게 어둡게만 보는 것일까? 해답은 장소의 선택에 있다. 구급차가 쓰여진 같은 해 라킨은 「말할 필요가 없는 말」("Nothing To Be Said")에서도 "컴컴한 아침나절 공업지대에서 다닥다닥 붙어사는 가족들에게는 삶이란 서서히 죽어 가는 것"(1연) 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업지대. 현대화된 병원건물, 구급차들, 검은 도시 모두 라킨이 시에 등장 시킨 산업화의 산물들이다. 라킨은 이처럼 죽음의 장소들을 혐이 없고 혼탁하고 복잡하며 냄새나는 장소로 택했다. 가족에 둘러싸여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인생의 마감장소를 왜 하필 이런 곳으로 선택한 연유를

우리는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시 20세기 전후로 불어 닥친 다양한 사상과 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더 이상 사람이 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님을 역설했으며 그에 더하여 파시즘과 마르크스주의의 등장은 사상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무엇보다 당시까지 과학이 가져올 인류의 행복을 고대했던 사람들은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과학이 언제든지 인류를 파멸할 수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2차 대전 후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수년간 전쟁의 수습과 함께 급속도로 자본화되고 산업화되어가는 세계적인 시대 조류에 편승한다. 이후로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크고 작은 전쟁 들이 있었으나 각국의 경제 산업화의 경쟁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라킨의 눈에 비친 영국의 실상은 달갑지가 못했다. 기계화 된 산업구조 속에 인간의 본질은 이미 왜곡되었고 일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대 자본주의의 공장논리에 흡수되어버린 기계적인 인간들을 시인은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공업시대의 공장들과 대형병원 건물들은 사람과 일이 주객이 전도된 형태라는 시각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사람은 죽을 것인데 삶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초라한 장소에서 죽어가야 하는 논리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라킨이 그의 시 「두꺼비들」("Toads")에서 그 자신이 일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데, 즐거워야 할 일의 본질도 스스로 표현했듯 "두꺼비"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이 아닌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학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젊어서부터 삶과 죽음에 진지했던 라킨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이다.

III. 죽음의 수용과 관조

라킨은 그의 후기 시로 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환멸을 다룬 시들이 많다. 이장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라킨의 시 「새벽의 노래」("Aubade")에서 "죽는 것과/ 죽은 상태의 두려움이/ 새롭게 어른거려/ 나를 붙잡고 공포에 질리게 한다."(*the dread/ Of dying, and being dead/ Flashes afresh to hold and horrify...*)라고 고백한 라킨은 분명 인간의 노쇠 현상에 대해 분노심을 느낄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김명옥 36). 그렇다고 그의 모든 시들을 통틀어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을 견지하고 있다고 단정한다면 라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라킨은 시를 통해서 자신을 사심 없이 드러내었고 이러한 드러냄의 과정은 내면의 깊은 고독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로부터 어떤 결론이나 해답을 얻고자 노력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라킨의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은 문제에 대한 극복으로 승화되지 않고 어찌할 수 없다는 체념적인 수긍과 수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시는 마치 깊은 어둠의 정적 속에 홀로 앉아 때로는 초연(超然)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자신과 고단한 줄달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비밀로 감추지 않고 종이 위에 차분히 옮기는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서 글로 옮긴다는 것은 자신의 관찰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설 때이다. 그런데 라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과거의 회귀를 통해 자아도취에 빠지고 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려는 작가적인 비전이나 의지 등을 그의 시에 담기를 거부한다. 죽음 자체로 삶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라킨이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낭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진실보다는 매력적이고 위안적인 견해들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연구(김옥수 391)는 타당하다 하겠다.

이 장에서는 삶의 포괄적 의미를 죽음의 귀착이라는 명제(命題)하에 라킨의 시를 연구한 목적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명제의 중요 소재인 시간이 시인 라킨에게 어떻게 적용됐으며 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중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논지들을 「풀밭에서」("At Grass")를 포함한 그의 대표 시들을 예로 들어 논하고자 한다. 또한 라킨 개인의 죽음에 대한 시적 통찰과 그의 시속에 드러나 있는 죽음에 대한 라킨의 입장을 그의 전기와 시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라킨의 죽음에 대한 현실적 물음의 모티브를 제공했던 당시의 영국 시단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라킨 이전의 낭만주의와 모더니즘은 이성적 비판력이나 분석적 반성은 부차적이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즉각적인 체험과 통찰을 통해 파악되는 상상적 깨달음을 일차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생각했다(Langbaum 35). 그러나 라킨을 포함한 모더니즘 이후의 작가들은 이와 태도를 달리한다. 그들은 결코 상상력을 통해 무의미하고 무질서한 혼란을 초월하여 의미 있는 세계로 나아가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이들은 철저히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을 물으며 인간의 유한적인 존재에 주목한다(권영탁 16). 따라서 이러한 라킨을 포함한 모더니즘 이후의 시류와 시인들의 시적 성향은 거창한 주제나 암시를 통해 대중 위에서 대중을 가르치려는 예언자적 태도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시의 단순성과 일상성으로 시를 통해 삶을 단지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라킨의 시에서도 이러한 주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 바탕을 둔 라킨의 죽음에 대한 본질적 태도는 독자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건물」("The Building")에서 병원을 새롭게 몸을 치료해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치유의 목적과 장소가 아닌 단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들이 오고가는 장소로서 묘사했듯이 그의 시 「얼마나」("How")에서도 병원을 또한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표현

하고 있다.

How high they build hospitals!
Lighted cliffs, against dawns
Of days people will die on.
I can see one from here.

얼마나 높게 그들이 병원들을 짓는지!
불 켜진 낭떠러지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갈
하루의 새벽에 맞선다.
여기서도 한사람을 볼 수 있다. (CP 182)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불 켜진 낭떠러지인 병원은 치료에 대한 기대보다 죽음에 대한 비관적 장소로서 적절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눈에 비친 병원 건물은 삶의 활기가 없는 곳이며 단지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차가운 시멘트로 둘러싸인 거대한 죽음의 임시 피난처로 보인다. 여기서 화자는 마치 왜 하필 이런 천 길 낭떠러지 같은 대로 몰려 왔는지 역정을 내고 있는 듯하다. 죽음의 장소에 대한 라킨의 의중이 파악되는 대목이다. 라킨은 이처럼 기독교나 여타 종교인들과는 달리 죽음을 "최후적이고 최종적인 것"(Martin 54)으로 보고 있으며 죽음을 영원한 소멸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서는 어떤 종교나 신앙을 통한 위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라킨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의 삶의 기준점과 목적은 무엇이고 죽음으로 가는 시간의 덧없음은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사랑, 일,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기준 앞에 라킨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다. 단지 그는 시를 통해서

그가 견지하고픈 삶의 작은 순간들을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펼쳐 보이고 있다. 라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적용 시킬 때 각 사람 개개인의 가치관 및 삶의 형편과 맞물려서 결코 '이렇다' 하고 쉽게 결론짓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 가가기에는 참으로 무거운 의미임에 분명하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삶의 롤 모델을 적절하게 제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네들이 이로 인해 행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만무한 일이며 가능성 또한 희박 할 것이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자체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인 전기, 역사, 세계사, 문학 등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살다간 우리 선조들의 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다양한 방식들을 엿보며 우리는 때로는 냉혹하게 평가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죽음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킨 같은 20세기 중반의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래했던 영국의 한 시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의 시관을 살펴보면 삶의 의미를 찾고 결론을 얻고자 하는 일은 어찌 보면 편협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50년대를 대표하며 당시의 시류파를 이끌었던 라킨의 시 속에는 적어도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라킨 자신만의 고민의 흔적들을 진하게 남기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깊은 고민,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우리 삶의 공통된 소재에 대한 그의 진솔한 시각은 시라는 소통의 창구를 통하여 살아서 숨 쉬듯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다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삶과 죽음의 다양한 사연들 중에서, 그중에 일부인 라킨의 사연 중 일부를 경청하고 있다. 또한 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들을 각자의 삶의 논지대로 평가하고 때로는 주관적인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워야 할 필요를 이제는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태어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기 마련이

다. 그리고 이것이 라킨의 주요한 시적 주제이다"라고 Roger Day가 말한 바 있다(노저용 1에서 재인용). 무엇보다 라킨에게 죽음의 회의적 입장으로 가기까지 시간이라는 단어는 그의 시적 소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라킨에게 시간의 경과를 냉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그의 사적인 사생활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라킨과 관련된 전기에서 보여 지듯이 라킨 사후의 명성과 명예는 그와 관련된 사적인 얘기들이 세상에 들춰짐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은 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잣대로부터 한참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젠가부터 그에게는 이제 인종주의자, 여성 편력주의자, 허무주의자 등과 같은 극단적 표현들이 그의 이름과 함께 따라 다니게 되었다. 이처럼 라킨에게 적용된 실제상의 시간의 경과는 그의 시적 표현들과 때로는 엇비슷하게 허무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의 발자취를 초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를 둘러싼 평가들에 일방적으로 동조하거나 또한 지지할 이유는 없다. 단지 그의 삶과 시적 세계관에 대한 면밀하고 밀접한 관찰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했고 소통하고자 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방식,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독자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를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밝혔듯이 라킨에게 시를 쓰는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시를 통해서 독자인 대중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입장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인이 더 이상 독자들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어떤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자와 함께 손잡고 다니면서 보통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공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영탁 21).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류파가 시의 고립을 경계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시류파가 지향하는 예술의 개념에는 이미 소통에 대한 욕망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곧 관계를 긍정하는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연구(이재은 5)는 라킨의 독자를 향한 작가관을 충분히 엿보게 한다.

시간의 경과와 경과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라킨의 시각은 하디의 비 초월적 태도로부터 크게 영감을 받는다. 라킨이 일찍부터 시간의 경과에 예민한 이유는 단순히 그에게서부터 젊음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쉽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윤희수 155). 그에게서 시간의 흐름은 마치 젊음의 활기는 사라지고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는 메마른 농토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라킨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란 이처럼 거대한 바윗덩어리가 그의 뇌리에 언제나 무겁게 잔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라킨이 『옹저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그대로 드러난다.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되시나요?"라는 질문에 "네. 두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저를 괴롭히느냐고 물으신다면, 끝없는 소멸(endless extinction)이 두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RW 55).

"나는 두려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알고 싶고 또 새롭게 느끼고 싶다." 라고 이탈리아 등반가인 매스너는 말했다. 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등반가의 말처럼 라킨은 자신의 두려움의 소산인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했다. 진지했기 때문에 토로할 수 있었고 예리한 통찰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민감함은 그의 초기 시 「스물여섯에 대하여」("On Being Twenty-Six")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원초적 추진력은
분명 스물넷이나 스물다섯에

시들 거라고;
이제 다타버린 유년기의 찌꺼기가
내가 옳았음을 증명한다.
밝게 타오르던 것을 붙잡는 것은

I thought; this pristine drive
Is sure to flag
At twenty-four or -five;
And now the slag
Of burnt-out childhood proves that I was right.
What caught alight (CP 24)

여기 4행에 나오는 "다타버린 유년의 찌꺼기"(the slag of burnt-out childhood)는 미래를 향한 전망도 없을뿐더러 과거의 아늑한 추억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오직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시인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라킨은 이시의 3연에 가서는 그가 자신에 대해 예측 했듯이 "재능과 행복 또한 사라져 간다"(Talent, felicity these things withdraw)고 말하고 있다. 오직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나 이 들어 시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라킨은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자신을 아는 시인이었다. 한편으로는 애써 회피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의 실체를 명확히 알았기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애를 썼다는 표현이 시인 라킨에게는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라킨이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시점은 시의 방향을 뚜렷이 설정하고 나서도 한참 뒤인 1950년도부터이며 그해 1월에 명작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풀밭에서」("At Grass")이다. 독자나 비평가의 시선에 따라 이 시에 등장하는 경주마의 의미부여를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혹자

는 현역에서 물러난 경주마는 50년대의 대영제국의 현주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며, 또 혹자는 라킨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산물들에 말을 등장시켜 인생의 현실적인 실체를 들추어내려는 시도로도 보고 있다 (김상무 31-49).

그것들이 들어선 찬 그늘에서
쫄처럼 말들은 눈에 띄이지 않는다,
바람이 꼬리와 갈기를 괴롭히기까지는;
그러자 한 마리는 풀을 뜯고 돌아다니고
또 한 마리는 그냥 바라보는 듯
그리곤 다시 눈에 띄이지 않게 선다.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아마
스무 번 남짓 조금만 앞서가기만 하면 족히
그것들은 이야깃거리가 되었으리라.
그것들의 이름을 아로새겨
사라진 고전적 경마의 달 6월을 자개 박던
각종 경마가 벌어진 희미한 오후들

출발점에 늘어난 기사들의 비단 셔츠
하늘에 걸린 번호판과 파라솔,
바깥엔 빈 자동차들의 대열과 더위,
그리곤 어수선했던 풀밭, 마감 뒤의 기사가
거리에 나돌아야 비로소 잠잠해지는
오래 멎지 않는 함성

The eye can hardly pick them out
From the cold shade they shelter in,

Till wind distresses tail and mane;
Then one corps grass, and moves about
The other seeming to look on
And stands anonymous again.

Yet fifteen years ago, perhaps
Two dozen distance sufficed
To fable them; faint afternoons
Of Cups and Stakes and Handicaps,
Whereby their names were artficed
To inlay faded, classic Junes-

Silks at the start; against the sky
Numbers and parasols; outside,
Squadrons of empty cars, and heat,
And littered grass; then the long cry
Hanging unhushed till it subside
To stop-press columns on the street. (CP 75)

「풀밭에서」("At Grass")는 라킨의 시집 『덜 속은 자들』(*The Less Deceived*)의 맨 끝에 수록된 작품으로 이제는 늙어서 일선에서 물러난 경주마를 소재로 다룬 작품이다. 이 시에서 라킨은 특색 없이(Anonymous) 한가로이 서 있는 노마(老馬)를 관찰한다. 1연의 1행에서 "그 눈매가 좀처럼 눈에 띄이지 않는다."(*The eye can hardly pick them out*)라고 말함으로써 옛적의 기민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이 경주마로부터 찾아보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현역에서 은퇴한 이 경주마는 한때는 왕성한 기력을 자랑했으나 이제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이리저리 거니는 모습이다. 이제 "바람이 꼬리

와 갈기를 괴롭히기 까지는"(Till wind distresses tail and mane)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노마가 얼마나 세월에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연의 스무 번 남짓 조금만 앞서기만 하면 이야깃거리가 되었던 것은 왕성한 기력을 보여주던 경주마의 과거에 불과하다. 또한 3연에 늘어선 기수들의 비단 셔츠, 번호판과 파라솔, 자동차들의 대열과 더위, 어수선한 풀밭 등은 오래 잊지 않는 함성과 함께 이미 오래된 기억이며 추억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남은 것이라곤 이제 편안하고 한가로운 풀밭뿐인 것이다

추억들이 파리처럼 그들의 귀를 쫓아 대는가?
말들은 머리를 흔든다. 어스름이 그늘을 채운다.
한 여름 한 여름 모두 사라져 갔다,
출발점의 문과 군중과 함성들-
남은 것 이라곤 편안한 풀밭뿐이다.
年鑑에 실려 그것들의 이름은 산다. 그것들은

이름을 벗었기에 마음 편안히 서거나
정녕 재미로 달려 보기도 하는 것이다.
결승점까지 그것들을 지켜볼 쌍안경도
그것들의 기록을 예언할 궁금한 스톱워치도 이젠 없다.
오직 馬夫와 馬夫의 심부름꾼 아이가
고삐를 들고 저녁이면 찾아올 뿐.

Do memories plague their ears like flies ?
They shake their heads. Dusk brims the shadows
Summer by summer all stole away,
The starting-gates, the crowds and cries-

All but the unmolested meadows.

Almanacked, their names live; they

Have slipped their names, and stand at ease,

Or gallop for what must be joy,

And not a fieldglass sees them home,

Or curious stop-watch prophesies;

Only the groom, and the groom's boy,

With bridles in the evening come. (CP 75)

이제는 4연의 첫 행에 등장하는 이 노마는 추억들이 파리처럼 그들의 귀를 쏘아대도 머리를 흔들며 쫓아낼 뿐 별다른 움직임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흐르는 시간과 세월의 속절함을 어찌 하겠는가 하는 화자의 비유적 표현이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기막힌 표현을 한다. 그것들의 이름은 이제 "연감에 실려"(Almanacked) 산다는 것이다. 현재는 풀밭위의 초라한 행색이지만 과거에 화려함과 영광은 연감(Almanac)에 실린 형태로 이 경주마의 위상을 대변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과거의 화려함으로의 회귀는 불가능 하지만 연감에 실린 명마의 위상은 세월이 흘러도 지속될 것이라는 라킨의 비유적 설명이다. 그런데 곧바로 시인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과거에 이 말들과 영광을 함께 했던 쌍안경이나 스톱워치는 이제 사라지고 오직 마부와 마부의 심부름꾼만이 고삐를 들고 저녁이면 찾아 와서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라킨은 이 시에서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때는 화려했고 영웅적인 찬사를 받았던 말들을 등장시켜 인생의 부귀영화나 명성도 한때이며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킨 자신이 일상에서 지켜본 말들의 운명이 사람의 명운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처럼 나이 들면 초라해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관점인 것이다. 라킨은 이 시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초라한 말의 행색을 통해 자신이 그려온 삶과 죽음의 과정과 의미를 세밀히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상상과 예측되는 결과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단지 라킨은 한결음 물러서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자신이 견지해온 삶과 죽음이라는 의미를 이처럼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현역에서 은퇴한 말들을 소재로 명성이나 활약에 대한 '특색 없음'(anonymity)을 보편적 인간의 노쇠화와 결부시키는 상징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김종길 95).

죽음은 결국 시간 앞에 무기력해 지는 것일까? 라킨의 「풍화작용」("Disintegration")은 시 제목에서 보여 지듯이 삶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시간이 '분해' '붕괴'를 의미하는 풍화작용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라킨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시간의 무서운 현실 앞에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거부한다. 시간은 오로지 파괴자의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이며 사람 곁에서 언제나 조롱하듯이 죽음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처럼 보인다.

시간은 베게 아래로 흘러가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채광장과 침탑 같은 꿈이 약속된
 기차에 올라탄 연인들의 잠을 깨운다
 시간은 각 방에 세든 사람들 사이에서
 식탁을 가로질러 그들의 삶이
 섹스의 산(酸)으로 녹는 것을 관람한다.
 Time running beneath the pillow wakes
 Lovers entrained who in the name of love
 Were promised the steeples and fanlights of a dream;
 Joins the renters of each single room

Across the tables to observe a life
Dissolving in the acid of their sex; (CP 162)

1연에서 시간의 의미는 약속과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 미래의 꿈들을 같이 일궈가야 할 연인들의 앞날은 매일 도래하는 시간 앞에 삶의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육신의 부딪침만 있으므로 시간이 거듭될수록 삶은 분해되어가는 수순에 불과하다 볼 수 있다. 실로 라킨이 묘사하는 시간의 파괴성은 가공할 만하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로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제 이어지는 연에서는 시간 속에 훈련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시간은 머리 위에 듬성듬성 머리카락을 흘트리고
면도질한 잔디밭위에 얇은 얼음을 펼친다.
시간은 해마다 서리 내리는 허가장에 서명을 하고
마침내 쟁기로 들판의 그루터기를 갈아엎고서
알려진 세계마다 미지의 세계를 소개하고
오직 상냥한 자세로 그들이 훈련되게 한다.

지붕 너머로 시간은 빙빙 도는 중이었던 것
철 따라 이동하듯, 움직임 없는 새 한 마리,
미래의 모양상 어떠한 변화도 예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광이 보여준다. 여전히 헝클어진 거리들을;
시간이 가리킨다. 머릿속 유인원의 카메라를
혼란을 근거로 보이고 또 보이겠다는 거지.

Time that scatters hair upon a head
Spreads the ice sheet on the shaven lawn;

Signing an annual permit for the frost
Ploughs the stubble in the land at last
To introduce the unknown to the known
And only by politeness make them breed;

Time over the roofs of what has nearly been
Circling, a migratory, static bird,
Predicts no change in future's lancing shape,
And daylight show the streets still tangled up;
Time points the simian camera in the head
Upon confusion to be seen and seen. (CP 162)

2연의 시간은 속절함과 야속함을 의미한다. 머리위에 들성들성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어쩌면 시인 라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면도질한 잔디밭 위에 얇은 얼음을 펼치는 것은 한 순간의 부질없는 행동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시간은 얼음을 분해시킬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시간은 길들여진 시간이다. 새로운 세계를 소개받고 들판의 그루터기를 갈아엎는 과정은 시간에 이미 길들여져서 오직 그들이 "상냥한 자세로 스스로를 길들여지게 할 뿐"(Politeness make them breed)이라는 것이다. 이제 3연에 등장하는 시간은 이동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주하는 철새'(migratory bird)는 움직임이 없이 '고정'(static)된 채 죽음의 사자인 시간만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머릿속의 유인원의 카메라를 가리키고 있음은 또다시 농락 시킬 대상자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그것들은 혼란을 틈타 또다시 인생의 중심위에서 죽음을 담보로 수많은 인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라킨의 눈에 비친 시간의 파괴력은 일시적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킨이 보다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한 작품이 다음에 나오는 「새벽의 노래」("Aubade")이다. 1연 첫 행의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어중간히 취해"(I work all day, and get half-drunk at night)라는 구절은 실제로 라킨이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그해 초에 일에 찌들려 매일저녁 술을 마셨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김상무 263).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화자가 가장 사랑하는 현세적인 삶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즉 공포에 관한 노래(Tolley 135)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정적이 없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고독하게 홀로 앉아서 삶과 죽음의 이리 저리한 단면들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있는 시인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나는 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어중간히 취해,
네 시에 소리 없는 어둠에 깨어서, 나는 응시한다.
시간 이 흐르므로 커튼 가장자리가 밝아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사실상 늘 거기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이제 하루가 더 가까워진 셈 없는 죽음이,
어떻게, 어디서, 언제 내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쓸모없는 의문이지만,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새삼 떠올라 나를 사로잡고 두렵게 한다.

눈부신 빛에 마음이 텅 빈다. 이루지 못한 선행,
배필지 못한 사랑, 쓰지 않은 채 버려진 시간에 대한 회한
때문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인생이 그 잘못된 시작에서 간신히
벗어나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예 벗어날 수도 없어 비참하기 때문도 아니다;
영원한 총체적 공허함,

우리가 향해 가서 늘 길을 잃고 말
분명한 소멸 때문이다. 여기 없고,
어디에도 없지만 곧 찾아올;
이보다 더 두려운 것, 더 진실한 것은 없다.

I work all day, and get half-drunk at night.
Waking at four to soundless dark, I stare.
In time the curtain-edges will grow light.
Till then I see what's really always there;
Unresting death, a whole day nearer now,
Making all thought impossible but how
And where and when I shall myself die.
Arid interrogation; yet the dread
Of dying, and being dead,
Flashes afresh to hold and horrify.

The mind blanks at the glare. Not in remorse
- The good not done, the love not given, time
Torn off unused-nor wretchedly because
An only life can take so long to climb
Clear of its wrong beginnings, and may never;
But at the total emptiness for ever,
The sure extinction that we travel to
And shall be lost in always. Not to be here,
Not to be anywhere,
And soon; nothing more terrible, nothing more true. (CP 190)

밖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화자는 고요한 정적이 흐르

는 새벽에 술에서 깬다. 그리고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깊은 상념의 세계로 자신을 떠맡기고 있다. "소리 없는 어둠"(Soundless dark)이 그를 깨워서 쓸모없는 의문이라고 회피하고 싶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새삼 떠올라 그를 사로잡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가 언급하는 여기 1연의 5행에 나오는 "침 없는 죽음"(Unresting death)은 이전부터 화자의 마음을 괴롭혔던 두려움이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고 표현한 것은 마치 죽음을 체념한 듯이 기다리며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시인의 초라한 모습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선행과 베풀지 못한 사랑, 쓰지 않은 채 버려진 시간"에 대한(The good not done, the love not given, time torn off unused) 회한에 잠긴다. 2연에서는 단 한 번의 인생이란 것을 자각하지만 뭔가 지금까지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공허함에 휩싸인다.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실체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두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특수한 방식의 두려움이다,
어떤 속임수로도 떨쳐낼 수 없는 종교가 시도 했던,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듯 가장하려 만들어낸
저 거대하고 낱아빠진 화려한 악극,
어떠한 이성적 존재도 자기가 느끼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다며 허울 좋게 말하지만
정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지 못 한다; 보지 못 하고, 듣지 못 하며, 만지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지 못한다는 것, 생각할 것도,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것도 없는,
누구도 되돌아올 수 없는 마취 상태.

그리하여 그것은 딱 시야 가장자리에 머문다,

그렇게 그것은 바로 시선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다,
초점이 잡히지 않은 작은 얼굴, 매번의 충동을 우유부단함으로
가라 앉혀버리고 마는 지속적인 한기.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나, 이것은 벌어질 일이고,
그 깨달음은 우리가 친구나 술 없이 사로잡히는 순간
용광로 같은 두려움 속에서 불같이 솟구친다. 용기도 소용없다;
용기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용기 있다 해도 어느 누구도 무덤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버텨보든 투덜대든 죽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천천히 빛이 강해지면서 방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오장처럼 뚜렷이 서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알고 있고, 늘상 알아왔던 바로 그것,
한 쪽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에 전화기들은 잠긴 사무실 안에 웅크린 채 울릴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의치 않고 복잡한, 임대한 세상은 깨어나기 시작한다.
해가 없는 하늘은 점토처럼 하얗다.
일은 마쳐야 한다.
우체부 들이 의사처럼 집집마다 옮겨 다닌다.

This is a special way of being afraid
No trick dispels. Religion used to try
That vast moth-eaten musical brocade
Created to pretend we never die,
And specious stuff that says No rational being
Can fear a thing it will not feel, not seeing
That this is what we fear-no sight, no sound,
No touch or taste or smell, nothing to think with,

Nothing to love or link with,
The anaesthetic from which none come round.

And so it stays just on the edge of vision,
A small unfocused blur, a standing, chill
That slow each impulse down to indecision.
Most things may never happen; this one will,
And realisation of it rages out
In furnace-fear when we are caught without
people or drink. Courage is no good;
It means not scaring others. Being brave
Lets no one off the grave.
Death is no different whined at than withstood.

Slowly light strengthens, and the room takes shape.
It stands plain as a wardrobe, what we know,
Have always known, know that we can't escape,
Yet can't accept. One side will have to go.
Meanwhile telephones crouch, getting ready to ring
Intricate rented world begins to rouse.
The sky is white as clay, with no sun.
Work has to be done.
Postmen like doctors go from house to house. (CP 190-191)

3연에서는 이것(죽음)은 특수한 방식의 두려움으로 종교나 어떠한 인간의 사상이나 속임수로도 떨쳐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린다. 또한 4연 8행에서는 "용기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음"(It means not scaring others)이라고 정의한 후에는 그러나 결국은 "용기 있다 해도 어

는 누구도 무덤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Being brave, Lets no one off the grave)라고 말한다.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시인은 좌절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곧 날이 밝아오고 사무실 안의 전화기들은 웅크린 채 울릴 준비를 하고 있듯이 습관적인 하루의 순서들은 시인을 다시 일상 속으로 빠져 들게 한다.

라킨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정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자인 시인 라킨의 소통의 대상이 다른 아님 자기 자신이라는데 있다. 새벽에 깨어서 오래전부터 내재해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책이나 원망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려 했다. 이것은 내면의 노력의 의지이기도 하는데 두려움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어서 자신을 투영해 봄으로써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고질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자신과의 조용한 사색이며 한 걸음 물러서서 죽음을 관조하려 했던 라킨의 죽음을 대하는 자신만의 방식이기도 했다.

IV. 결 론

이 논문의 목적은 필립 라킨의 시 가운데 죽음의 주제를 내포하는 시를 대상으로 그가 조망하고자 했던 죽음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결코 그가 죽음을 애써 회피한 시인이 아닌 독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필연성을 자신만의 방식과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시키는데 있었다. 그리고 라킨의 내면에 오랫동안 잠재해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이, 그의 시 「기억난다, 기억나」("I remember, I remember")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유년시절의 암울한 기억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도 언급한 바가 있다. 또한 그의 시 작품 속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적인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으며 현실적인 삶과 죽음의 물음들을 사실적으로 답하고 있는 "시류파"(The movement)시인을 대표하는 라킨의 시적성향도 그의 대표 시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본문의 II 장 서두에서 밝혔듯이 라킨은 "죽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죽음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드러낸다. 이렇게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라킨의 태도는 초월적 체험을 우위에 두는 신낭만주의 시인들과는 달리 철저한 죽음에 대한 현실인식과 자각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라킨 이전의 신낭만주의를 비롯하여 모더니즘까지의 시인들은 이성적 판단이나 삶의 본질적 반성은 비현실적이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즉흥적인 체험과 통찰을 통해 파악되는 이상적 깨달음을 확신했던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적 경험의 초월 위에 있는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초월적 현상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하디의 비 초월적 현실인식을 경험한 라킨은 삶의 본질을

묻고 싶어 했던 시인이었다. 본문에서 연구한 「그 빌딩」("The Building")과 「구급차」("Ambulance")에서 나타나듯이 라킨은 죽음의 당면문제를 극복할 수 없음에 막다른 공허함을 느낀다.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라킨은 그의 시를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의 Ⅲ장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사색하는 시인 라킨의 관조적 입장에 주목하였다. 관조(觀照)의 사전적 의미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종교나 철학적 의미로는 "지혜로 모든 사물의 참모습과 나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라킨의 죽음에 대한 관조적 태도는 깊은 사색을 거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삶의 밑바탕에 진하게 깔린 라킨의 태도는 관조적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독자로 할 수 있는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라킨은 스스로 내적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독자에게 '드러냄'의 미학과 소통의 지혜를 작가로서 보여준 셈이다.

라킨의 사실적 언어구사와 현실적 삶의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기존의 신낭만주의 이후에 현실적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임을 명시하였다. 서양의 문학사조는 대부분 그 이전의 문학사조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라킨을 위시한 시류와 시인들은 대중위에 군림해서 독자를 가르치려는 독점적 작가의 위치에 있는 사고방식을 철저히 배척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소통을 중시하며 일상의 언어와 현실에서 답을 얻고 독자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했던 시인들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인들과는 차별된다고 밝혔다

라킨의 죽음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시적 성향을 두루 살

떠보는 과정 안에서 이로부터 어떤 삶의 의미를 얻으려는 태도는 편협되고 어리석은 발상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21세기의 어느 한 자락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영탁. 「필립 라킨; 여성혐오주의자인가, 예술의 사제인가?」. 『영어영문학 연구』. 49.4 (2007): 17-34.
- _____.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미시』. 서울: 한국 현대영미시학회, 2009.
- 김명옥. 「기독교 관점에서 본 T.S 엘리엇과 필립 라킨의 시 비교 연구」. 『외국문학연구』. 27 (2007): 30-52.
- 김상무. 『필립 라킨의 시; 사랑과 시간과 죽음』. 서울: 태학사, 2004.
- 김성곤. 『제49호 품목의 경매』. 서울: 민음사, 2007.
- 김옥수. 『20세기 영미시의 이해』. 서울: 한빛문화, 2008.
- 김정환. 『필립 라킨 Collected poems』. 파주: 문학동네, 2013.
- 김종길. 『현대의 영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노저용. 「Philip Larkin 의 시; 사랑, 이별 그리고 결혼」. 『현대영미시 연구』. 5 (2000): 281-308.
- 안선재. 「형이상학의 부재: 필립 라킨의 시 연구」. 『서강영문학』. 8 (1997): 1-28
- 이세규. 「라킨의 시와 역설」. 『현대 영미시 연구』. 1 (2002): 67-98.
- 이인영. 「고은론-시간의 공간화, 죽음의 공간화」. 『현대문학의 연구』. 10 (1998): 41-67.
- 윤현정. 「라킨의 시에 나타난 ‘뮤즈로서의 여성’과 ‘유한한 사랑’의 모티브」.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9.
- 윤희수. 「비초월성의 시학; 필립 라킨의 시에 나타난 시간과 죽음에 관한 연구」. 『영미 연구』. 30 (2014): 145-67.
- 이재은. 「필립라킨; 고독과 소통의 시인」. 고려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7.
- Booth, James. *Philip Larkin; Writer*. Hemel Hempstead: Harvester

- Wheatsheaf, 1992.
- _____. Ed. *New Larkins for Old; Critical Essays*. London: Macmillan, 2000.
- Brennan, Maeve. *The Philip Larkin I Knew*. Oxford: Manchester UP, 2002.
- Day, Roger. *Larkin*. Milton Keynes: Open Up, 1987.
- Dyson, Brian. Ed. *The Modern Academic Library: Essays in Memory of Philip Larkin*. The Library Association, 1989.
- Dirda, Michael. "Philip Larkin complete", *New Criterion* 30 April 2012: 13.
- Hartley, Jean. *Philip Larkin, The Marvell Press and Me*. Manchester: Carcanet P, 1989.
- King, P. R. *Nine Contemporary Poets: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Methuen, 1979.
- Langbaum, Robert. *The poetry of Experience: The Dramatic Monologue in Modern Literary Tradition*. New York: W. W. Norton, 1963.
- Larkin, Philip. *Collected Poems*. Ed. Anthony Thwaite. New York: Faber, 1988.
- _____. *Jazz Writings; Essays and Reveiws 1940-1984*.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2004.
- _____. *Required Writing; Miscellaneous Pieces 1955-1982*. Ann Arbor: U of Michigan P, 1993.
- Motion, Andrew. *Philip Larkin: A Writer's Life*. New York: Faber, Straus and Giroux, 1993.
- Martin, Bruce K. *Philip Larkin*. Boston: Twayne, 1978.

- Regan, Stephen. *Philip Larkin*. London: Macmillan Education, 1992.
- Timms, David. *Philip Larkin*. Edinburgh: Oliver & Boyd, 1973.
- Tolley, A. T. *My Proper Ground; A Study of the Work of Philip Larkin and It's Development*. Edinburgh UP, 1991.

